

# ‘가을엔 문학속으로’…목포문학과, 특별 콘텐츠 운영

성인 대상 문예대학 등 운영  
노인 대상 상주작가 지원사업  
10월5일~6일 시월애문학여행  
‘목포 골목길문학축제’ 개최

목포시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주요 강좌로는 △성인대상 문예대학 시·소설 창작반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문학교실 동영상 제작반, 독서·캘리그래피반 △실버층(65세이상) 대상 ‘찾아가는 문학관’을 운영한다.

문예대학은 시인 김선태 목포대 교수가 지도하는 시창작반(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과 소설가 채희운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지도하는 소설 창작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이 진행된다. 8월부터 각 강좌별 성인을 대상으로 30명 내외 인원을 모집해 운영한다. 문예대학 강좌는 글쓰기 작법, 합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작 이론과 실기를 지도한다.

어린이문학교실(월 3회, 토요일 오전 10시)은 초등 고학년(3-6학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글쓰기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반, 전학년을 대상으로 독서명인 쓰기인 독서·캘리그래피반을 진행한다. 각 강좌당 20명 내외 인원을 모집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학관’

을 진행한다. 목포문학과 상주작가인 조기호 시인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담을 문학적으로 답을 수 있도록 글쓰기와 작품낭독을 지도한다. 목포시노인복지회관에서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무료로 진행된다.

2024 상주작가 지원사업(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는 현재 목포문학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동시반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동시반을 운영 중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목포문학과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강좌별 4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시월애 문학여행’이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라는 제목으로 복교동 골목길 일원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차범석 탄생 100주년 행사를 비롯해 문학의 고장 목포의 다양한 문학콘텐츠를 전시, 행사, 공연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문학 소외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학관을 운영하고 목포만의 특별한 문학콘텐츠로 시월애문학여행 골목길문학축제를 개최해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남군, 단체·개인분야 대상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해남군이 2024년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개인분야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에서 열린 품평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무궁화 분화 138점, 분재 2점, 토피어리 3점 등 143여 개의 작품을 출품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30일 자체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를 개최해 기관분화 15점, 개인분화 6점을 선정해 전라남도 무궁화 품평회에 출품했다.

전문 심사위원 4인이 참여해 이뤄진 현장심사에는 품종의 고유 특징, 화형, 수형의 아름다움 등을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수의 분화를 출품해 품종별 재배기술을 두루 선보인 것은 물론 개화기를 맞아 풍성한 꽃이 피는 화형의 아름다움, 수형·가지잎의 상태 등 관리기술과 활착상태, 병충해 상태 등이 우수해 분화에 많은 정성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래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11번째 단체 수상을 거둘 정도로 무궁화 분화에 대한 탁월한 기술과 나라꽃 사랑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 심고 가꾸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평가  
강진군, ‘우수’ 기관 선정

강진군은 행정안전부 및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50%)과 2분기 소비투자 실적(50%)을 평가해 그룹별 상위 25% 이상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전남도는 상반기 신속집행(50%)과 1,2분기 소비투자 실적(50%)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군은 상반기 동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한 후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해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서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 사업 중심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토지 매입 협의 등 사업 단계별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105.6% 달성 및 소비투자 목표액 대비 123% 달성해,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00만원, 전남도 상사업비 등 3300만원을 확보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공무원 한사람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신속집행을 통해 고물가, 금리 상승 등 침체된 경기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소통 연결 창조의 신강진’을 이루는 탄탄한 기초가 되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서시교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  
구례군의회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지난 7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서시교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의 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구례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시교를 설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주요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서시교 개축 실시설계 용역 중단 △서시교의 과도한 승상 및 철거 계획 철회 △서시교 교량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해결책 마련 등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관계 부처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지역 최대 현안인 서시교에 대한 구례군민의 열망과 의견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적극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서시교 문제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구례군민의 뜻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남파랑길 광양로드 걷기 프로그램  
광양시, 8월 참여자 모집

광양시가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구간인 남파랑길 광양로드를 새롭게 조망하는 ‘길동무와 함께 걷는 광양의 색다른 여행길’ 8월 참여자를 모집한다.

‘길동무와 함께 걷는 광양의 색다른 여행길’은 해설가의 풍부한 설명을 통해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걷기 여행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각 코스를 두 구간으로 나눠 2시간 이내로 운영해 걷기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죽육, 모래 맨발길, 선셋 비유기 등 다양한 이색 체험으로 구성됐다. 8월은 남파랑길 광양로드 4개 구간 중 섬진강 꽃길로드(48코스)와 광양만 역사로드(49코스)를 중심으로 총 17회, 매회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제23회 광양전여축제가 열리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망덕포구 일원을 중심으로 매일 두 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코스 및 운영날짜, 신청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광양관광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772-094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제6회 호수공원 물총축제가 10일 순천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물총축제.

순천시 제공

제6회 순천조례호수공원 물총축제 10일 개최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는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호수공원 물총축제가 10일 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와 왕조1동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고 왕조청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왕조1동 주민세 환원사업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통해 아이들이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축

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직능단체에서도 안전 요원 근무 등 자원봉사에 나서며, 온 동네가 한 마음이 되어 행사 준비를 마쳤다.

이번 물총축제에서는 에어바운스, 물총싸움, 버블매직쇼, 워터타투 등 다채로운 게임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선착순 100명의 참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 “물놀이하고 전시도 보고” 함평서 무더위 탈출

함평군은 8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함평군립미술관, 함평추억공작소가 관광객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운영하는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2천400㎡ 부지에 파도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지난달 19일 개장한 물놀이장은 20일간 2만2125명이 다녀가면서 군민과 지역민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물놀이장은 1일 최대 2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매일 100% 수돗물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료 그늘막, 쉼터, 피크닉 테이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배달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올여름 특별이벤트로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DJ 버블 파티’도 매주 주말 열린다. 피서객들은 추억의 레트로 댄스음악부터 최신곡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디제이 공연과 함께, 풀장 양쪽에서 쏟아지는 버블을 맞으며 한여름 눈사람으로 변신하는 특별한 체험도 만끽할 수 있다.

신나게 물놀이를 마쳤다면,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전시 관람을 추천한다.

함평군립미술관에서는 오는 9월1일까지 특별기획전 ‘미술시간’이 마련된다. 전시 참여 작가는 김광욱, 양원철, 윤정귀, 임혜숙 등 4명으로, 모두 전·현직·미술교사 출신의 함평 작가들이다.

전시는 1교시 ‘담아내기’와 2교시 ‘바라보기’로 구성됐다. 전시작품들을 통해 연꽃·솜대·풍경·꽃등 소재의 다양성,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상호적 관계, 서양화와 동양화 재료적 특성, 작가들의 개

성 있는 작업방식 등을 감상할 수 있다.

40~60대 어른들이라면, 어린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떠나볼까.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위치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60년부터 80년대의 함평지역의 유물을 전시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함평추억공작소 1층 특별전시관에선 순금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을 만나볼 수 있으며, 또한 가상 인물인 ‘함기영’ 씨와 함께 22곳의 공간 연출과 3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는 한국 협계 경유열차로는 최초인 함평 협계열차를 재현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현재 엑스포공원 내 다육식물관, 친환경농업관, 수생식물관, 추억공작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